

노조에 달린 '금호타이어 운명'

해외자본 반대편 매각 무산...정상화 계획 부결된 법정관리 뼈 깎는 자구안 마련엔 해외매각 아닌 회생방안 찾을 수도

채권단 vs 금호타이어 노조 주장

채권단	금호타이어 노조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 보장하고, 5년 또는 채권단이 모든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최대 주주를 유지토록 합의해 '역투' 가능성 낮아	'역투' 가능성 5년 후 역투 가능성 여전해
금호타이어 존속 가치가 4600억원, 청산 가치가 1조원이라 매각이 유리	채권단이 자신의 손실은 일부분 보전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 손 터는 것
해외 매각 안 하고 회생할 방안이 현실적 불가능	중국 공장 매각과 부채 정리로 경영 정상화 통해 생존 가능

금호타이어가 갈림길에 섰다. 한쪽 길 앞엔 벼랑(법정관리)이 있고 다른 쪽 길(해외매각)은 어두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많지 않다. 1조3000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26일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 경영권을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도 포함된다.

채권단은 대신, "더블스타는 노조가 반대하면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가 해외 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기한 내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었다.

노조는 노조로 남긴 셈이다. 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생사(生死)가 갈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쩌다 이 지경 됐나? =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8개 공장과 9개 판매법인을 통해 연간 5400만개에 달하는 타이어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2위, 세계 14위 글로벌 타이어 기업이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타이어 기술력을 갖춘 방위산업체이기도 한 지역 대표기업이다.

하지만 중국 중심의 과잉 투자가 경영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높은 매출원가율로 약화된 가격 경쟁력이 '판매 부진-공장 가동률 저하-고정비 부담 증가'와 원가 상승-가격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구조로 돌아가면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회사가 당기 순손실(379억~886억)을 기록한 상황에서 생산직 평균임금은 2015년 4%, 2016년 18.9% 오를까 우려되는 등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점, 차입금 과다

에서 비롯된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이자비용 등도 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을 했다.

결국 계속기업가치(4600억원)가 청산 가치(1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사 결과가 나왔고 채권단은 해외 매각 외에는 감당할 수 없다며 손을 들었다.

◇해외매각만이 '유일한' 대안, 맞나? =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블스타와의 협상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했다.

현 채권단 체제에서는 정상화가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채권단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고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1조5000억~1조8500억원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중국법인 정상화를 포함한 경영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려운 청산가치(1조)보다 계속기업가치(4600억원)를 높이기 어렵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내놓은 '금호타이어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설명자료를 들여다보면 해외 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채권단이 설명자료에서 '경쟁사 수준으로 자구계획을 이행할 경우에도 계속기업가치가 1조1905억원으로 청산 가치 대비 1575억원 높아지는 데 불과하다'고 언급한 대목은 주목할만하다.

해당 문구대로라면 노조가 경쟁사 수준을 깎는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마련, 사측과 합의해 추진한다면 기업 존속가치가 높아지게 돼 회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금호타이어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

축할 수 있고 '강성' 노조라는 이미지도 희석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인수 후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노조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역투' 우려, 불신감도 팽배 = 지역 사회 분위기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방침에 부정적이다.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기반 기술을 확보한 뒤 법정관리로 가게 만든 상하이차, 군산공장을 갑자기 폐쇄하며 일지리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GM 등 해외매각된 국내 기업들의 좋지 않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사회의 불신을 살만한 사항들도 눈에 띈다.

우선, 채권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더블스타가 제시한 비전과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져 투자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비전과 운영계획을 노조와 회사측에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례적으로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을 중도에 공개하면서도 정작 노사가 공유하며 인수 후보의 진정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비전과 운영계획을 비공개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형편이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5년간 최대 주주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5년 뒤에는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데,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고 나면 중국 등 해외 공장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내 공장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해외 매각보다 일자리·지역경제를 고려한 구조조정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매각 대신,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수 후보자를 찾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 등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더블스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기술력과 생산능력, 품질개선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검토할만하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호타이어를 인수,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적 글로벌 기업체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체 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는 8일 인천 송도에서 노·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 K3' 판촉 행사를 개최, 눈길을 끌었다. (기아차 제공)

"안전한 뉴 K3 타세요" 기아차 노사 합동 판촉행사

기아차의 신차 판매를 위해 노조도 나섰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인천에서 열린 '올 뉴 K3'(All New K3) 판촉행사에는 권역별 노조 지회장은 "판매가 잘 돼야 생산도 산다"면서 "올해 신차의 선봉인 '올 뉴 K3'가 얼마나 중요한 차인지 잘 알기 때문에 품질과 납기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뉴 K3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 스트림(Smart Stream)'을 최초로 적용하고 동급 최고수준의 안전·편의 사양으로

기존 준중형 모델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뉴 K3'를 생산하는 화성공장 운민회 노조 지회장은 "판매가 잘 돼야 생산도 산다"면서 "올해 신차의 선봉인 '올 뉴 K3'가 얼마나 중요한 차인지 잘 알기 때문에 품질과 납기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국내영업 관계자는 "1일 계약 대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 '연 5만대' 국내 판매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기아차는 또 '올 뉴 K3'를 3박 4일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1000명의 체험, 1000명의 선택'이라는 시승 이벤트 참여 고객 1000명을 모집 중이다. 참여하려면 오는 4월10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기아차는 3박 4일간의 시승 후 후기를 본인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면 60명을 선정,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농협광주본부 "상호금융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추진 결의대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8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지역농협 상무 및 지점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호금융 사업추진 결의대회 및 방학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농협 광주본부 행사에 앞서 '오색 가래떡 나눔행사'

를 열고 지역 내 농협들이 하나로 뭉쳐 성공적인 상호금융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자고 다짐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농업인에게 적절한 상호금융 상품을 지원하는 것도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이라며 "인직원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33.08 (+31.26)
- ↓ 금리 (국고채 3년) 2.29% (-0.01)
- ↑ 코스닥 853.94 (+12.91)
- ↑ 환율 (USD) 1070.20원 (+1.10)

에어서울, 日 취항지 벗꽃 개화정보 제공

언제 일본으로 벗꽃여행을 가는 게 좋을지.

에어서울이 일본 나들이객들을 위해 벗꽃 개화 시기를 홈페이지와 SNS로 제공,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빨리 벗꽃이 피는 일본 구마모토 현을 비롯, 시즈오카, 오사카, 요나고, 다카마쓰 등 벗꽃 명소의 개화 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구마모토현의 경우 오는 20일 개화를 시작,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벗꽃 명소 100선'에 꼽히는 구마모토성 공원의 800그루 벚나무도 이 시기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벗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즈오카도 여행객들의 발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100년 향한 호남 정동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익을 보.

무료 공개 *조 선 대 : 3월 8일(목) / 주간 10시, 야간 7시
강의 일시 *광주여대 : 3월 13일(화) / 주간 10시, 야간 7시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8일(목)
- 교육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6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13일(화)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화) ~ 2018년 6월 19일(화)
- 매주 화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광주여자대학교) 광주은행 148-107-307803
- 접수문의 : 062)950-3583~5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